

새천년 낙농산업의 해결과제



지 설 하
낙농진흥회장



새천년 한국의 낙농산업을 유지·발전(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산유량의 열세(劣勢), 규모의 미달(未達), 경영의 불합리(즉 수입농후사료 다급), 제도의 미비(未備)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관계기관의 선진화된 지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언

새천년의 첫해는 우리민족의 새로운 희망과 용비(雄飛)의 상징인 용의해로 시작되고 있으나, 한국 낙농(酪農)산업의 앞길은 오직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93년 12월 UR협상 타결과 '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수입유제품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접근물량배정 등, 시장개방으로 '96년을 기점으로 낙농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정인 WTO 각료회의가 '99. 11. 30~12. 3까지 시애틀에서 개최되었으나 케언즈그룹과 수입국간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유화와 국내보조는 상당수준 감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쌀은 농업협정부속서 5조에 따라 차기협상과 별도로 2004년에 재협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은 WTO 이사회에서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는 등 축산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유제품(乳製品)의 수입상황을 살펴보면 관세율이 낮은 혼합분

유(기본관세 40%)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96년 5월에 한국이 산업피해신청을 하여 수입제한(TE, Tax Equivalent 적용)을 하자, 유럽연합(EU)이 국내 혼합분유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하며 우리나라를 '97년 8월에 WTO 분쟁조정위원회(Panel)에 제소하여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99년 6월에 패소하였으나 정부에서는 '99년 9월에 다시 WTO에 상소하여 금년 12월에 패소판정 쪽으로 기울 것이 확실시(確實施)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차기(次期)에 새로 개최될 뉴라운드 회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탈지분유(脫脂粉乳)를 위시한 모든 유제품이 양허관세 및 시장접근물량(CMA, MMA) 등으로 2004년까지 조정기를 거쳐 2005년에 완전개방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낙농산업이 선결(先決)하여야 할 길은 낙농제도개선(酪農制度改善), 기술혁신(技術革新), 적정규모화(適正規模化) 및 생력화(省力化) 등 개방화 대응전략(對應戰略)으로 세계시장에 도전(挑戰)하여야 될 것으로 믿는다.

2. 한국낙농업의 현황

한국의 낙농업은 '60년대 초 정부의 젓소수입과 자금지원, 유가공장의 설립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원유잉여(原乳剩餘)로 인한 분유재고의 누적(累積)으로 유대(乳代)의 미지불(未支拂)현상과, 유업체 경영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반대로 원유부족(原乳不足)으로 유업체간에 집유쟁탈(集乳爭奪)이 여러번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연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GNP수준이 1,000\$미만인 '62~'76까지 1인당 소비증가율은 39.7%로 급성장하였으나 GNP가 1,000\$에 달했던 '77년대부터 GNP가 4,295\$선에 있던 '88까지는 1인당 소비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7.5%에 그쳤다.

GNP가 5,000\$이상인 '89년부터 GNP가 10,000\$인 '98년까지는 소비증가율이 격감하여 2.4%에 머무르고 있다. 다행히 생산량은 '88년까지는 소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89년 이후부터 소비율의 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IMF이후 경제성장의 회복세와 소비지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97년 이전의 우유수요로 회복되고 있다.

금년도의 우유 소비는 15% 증가함으로써 분유재고가 상반기 7~8천톤에서 하반기 3~5천톤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낙농여건을 살펴보면 평균사육규모('97년 기준)가 한국이 호당 31두로 캐나다 47두, 영국 46두, 일본 46두, 미국 85두에 비해서 사육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동집약형으로 사육비가 과다하다.

두당산유량('98년 기준)은 한국 6,099, 일본 8,488, 미국 7,713kg으로 조사료 자원부족에 따른 벧짚 위주사양, 농후사료 과용 등으로 젓소 능력발휘에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유생산비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사료비 1.5배, 노무비 3.1배, 원유생산비가 1.7배 비싸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표 1〉 원유의 생산 및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 구 분 | '62~'76 | '77~'88 | '89~'98 |
|---------------|---------|---------|---------|
| 연평균 생산량증가율(%) | 42.7 | 18.7 | 2.5 |
| 연평균 소비량증가율(%) | 42.8 | 18.8 | 3.7 |
| 1인당 소비증가율(%) | 39.7 | 17.5 | 2.4 |

〈표 2〉 원유수급 상황

(단위: 천톤)

| | 공 급(천톤) | | | | 수 요(천톤) | | | 재 고 |
|--------|---------|-------|-----|-------|---------|----|-------|-------|
| | 이월 | 생산 | 수입 | 소계(A) | 소비 | 수출 | 소계(B) | (B-A) |
| '97 | 109 | 1,984 | 444 | 2,537 | 2,440 | 11 | 2,451 | 86 |
| '98 | 86 | 2,012 | 274 | 2,372 | 2,267 | 12 | 2,279 | 93 |
| '99.9 | 96 | 1,509 | 313 | 1,919 | 1,880 | 4 | 1,884 | 35 |
| '99(P) | 93 | 2,088 | 454 | 2,635 | 2,592 | 15 | 2,607 | 28 |

3.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과제

선진국에서는 30~6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낙농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지금도 그 제도에 낙농업이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의 낙농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는 연방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가 1966년에 발족되어 원유생산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 음용유는 월간 기준할당제를, 가공유도 연간 기준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가격결정은 생산비 변동이 2%이상 일때 조정토록 되어 있다.

일본은 중앙낙농회의(Japan Dairy Council)가 1962년에 발족되어 생산량 조절은 매월 할당량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은 초과(超過)생산시 차등가격제(差等價格制)를 실시하여 가격을 인하(引下)하고, 부족(不足)시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가격을 인상(引上)하고 있다. 원유가격결정은 1년단위로 유업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다.

영국은 1933년 우유유통위원회(Milk Marketing Board)가 발족되어 1994년 낙농공사(Milk Marque)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생산조절은 연간기준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가격조정을 위해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원유가격결정은 변동요인이 5~6% 발생시 조정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의 낙농제도는 아직도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실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복집유(重複集乳)로 인한 유통비용 과다지출
- ② 원유가 남을 때 유업체의 수익거부
- ③ 원유가 부족시에는 집유쟁탈
- ④ 또한 유업체는 분유재고누적으로 재정부담 가중
- ⑤ 원유검사에 대한 불신 상존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97년 8월에 낙농진흥법(酪農振興法)이 공포되고 금년 1월1일부로 낙농진흥회가 발족되어 한국낙농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낙농진흥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집유일원화 실시
 - 집유일원화(集乳一元化) 실시 전에는 61개 집유주체에서 집유하였으나 진흥회가 발족되어 '99년 3월 17일에 충남을 제외한 15개 집유조합이 지정되었고, 12월 15일 현재 10개 조합이 집유에 참여하고 있으며 3개조합이 집유절차를 밟고 있다.
 - 국내산 원유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가에서 가공공장까지의 직송체계(直送體系)를 도입하고 있으며

- 원유공급체계(原乳供給體系)의 개선을 통한 유가공산업 운영의 원활을 꾀하고 있다.

- 원유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집유경쟁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② 원유의 수급조절

- 남을 때 수매·비축(收買·備蓄)하고 부족시에 방출(放出)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50억의 수매자금(收買資金)을 확보하여 제주, 전남북 우선집유실시지역에서 수매를 실시하였다.

- 젖소사육두수, 원유생산량 및 원유수요량을 전망하고,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다음연도의 정확한 소비물량과 생산량을 예측하여 수급물량을 조절토록 하고 있다.

③ 검사공영화

- 과거에는 원유수요자(유업체)가 검사를 하여 유대(乳代)를 지불하여 왔으나 집유일원화 실시 지역은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가가 직접 검사한 성적을 가지고 유대를 지불하기 때문에 원유검사의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다.

- 원유검사기관의 공정성, 투명성확보로 원유품질향상과 낙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가 있다.

④ 낙농진흥회는 국내 시유의 소비홍보에 치중할 것이다.

- 상술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집유일원화, 검

사공영화, 수급조절, 원유품질향상 등 제도적 장치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4. 낙농기술의 제고 및 경영의 규모화

젖소의 개량촉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산유능력검정비율(産乳能力檢定比率)을 현재 17% 수준에서 선진국수준인 40%이상으로 제고(提高)하여야 한다.

젖소의 경영규모도 점차 확대하여 경산우 30두 이상 규모(規模)에 두당 8,000kg이상의 1등급 원유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 이상을 올릴수 있는 질적성장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 경영컨설팅체계구축 및 지도사업을 확대하여 낙농가와 전문컨설팅업체 연계로 효율적인 경영유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부 보조지원도 실시하여야만 된다.

그뿐만아니라 생산자단체, 낙농진흥회 등을 통한 원유품질향상 및 계획생산대비 낙농지도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료 등 부산사료자원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작(米作)이 부적합한 농지를 이용한 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곧포 싸일리지를 제조하여 낙농가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과제라고 본다.

또한 낙농업이 규모화됨에 따

〈표 3〉 검정두수 및 검정비 지원

| 구 분 | '98 | '99 | '00 |
|-------------|-------|-------|-------|
| 검 정 두 수(천두) | 53 | 70 | 100 |
| 검정비용지원(백만원) | 1,276 | 2,360 | 2,800 |

라 경영의 합리화 및 관리의 생력화(省力化)를 위해서 다두식(多頭式) 착유기의 조작 및 소독방법, 트랙타 작업기의 운전방법 등 기술교육 실시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새천년 한국의 낙농산업을 유지·발전(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산유량의 열세(劣勢), 규모의 미달(未達), 경영의 불합리(즉 수입농후사료 다급), 제도의 미비(未備)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관계기관의 선진화된 지도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국내 보조(즉, 총보호측정, AMS, A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낙농가 지원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신낙농유업대책(新酪農乳業對策)을 보면 가공원료유

(加工原料乳)에 대한 일정한 한도수량의 범위내에서 생산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다.

다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부분이 될 것이다. 유제품의 자유화시기는 '93년 1월에서 '96년 7월까지 자유화되었고 패널(Panel)에 걸려있는 혼합분유를 제외하고는 TE관세하에 시장접근물량(CMA, Current Market Access, MMA, Minimum Market Access)에 의해서 2004년까지 관세화 비율을 점차 낮추다가 2005년 기본관세율 20~40% 수준으로 완전자유화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국제환경하에서 한국낙농업의 생존전략은 시유(飲用乳)시장을 지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원유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산 시유(市乳)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

〈필자연락처: 02-573-7823〉